

초등학교 주변 ‘여드름 짜기’ 장난감 판매관련 정보제공

- (배경) 실제 병원에서 사용할만한 주사기가 포함된 어린이 완구가 초등학교 문구점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삼킴·베임 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 - 완구는 만 13세이하 어린이가 놀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(재질)을 뜻하는 것으로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안전인증대상(KC) 제품임.
 - 다만, 해당 제품은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‘14세 이상 사용 가능’을 명시하여 어린이 완구 제품에 적용되지 않음.
- (주요내용) 최근 크림과 색소로 구성된 물질을 주사기로 장난감 얼굴에 넣은 다음, 손으로 여드름을 짤 수 있도록 만든 ‘여드름 짜기*’ 장난감이 초등학교 소재 문구점 등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음.
 - 주사기 안에 넣는 크림과 색소는 정확한 성분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, 주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제 주사기와 동일하게 생겨 이용자 다수가 초등학생임을 고려하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.
 - 이에 초등학교가 지근에 소재된 문구점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 적합한 제품 판매를 지향하여 소비자 위해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해주시기를 권고함.

< 위해 우려 완구 제품 유통 자제 권고(안)>

- ① 14세 이상 사용 가능 제품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판매를 반드시 금지할 것
- ② 유치원, 초등학교 근처 등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문구 사업자(조합원)의 경우 주 이용자를 고려한 제품의 유통·판매가 필요
- ③ 어린이 제품 여부가 혼동된다면 KC 마크 등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할 것
- ④ 외관상 어린이들의 위해가 우려된다면, 소관 부처(국가기술표준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)에 문의할 것

-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 연령에 적합한 제품사용을 권장함.